朝鮮日報
朝刊
本紙朝夕刊十二面

社說

朝鮮思想犯保護觀察令發布

一

朝鮮思想犯保護觀察令이 今十二日附로 發布되며 來二十一日부터 實施하기로되엿다。이法令이 發布實施되게된 經緯는 지난 第六十九議會에서 思想犯保護觀察法案이 通過되엇는데 日本內地에는 이미 去十一月二十日부터 同法實施를 보게 되엿다。그런데 總督府當局은 同法을 朝鮮에도 實施할 必要가잇다고 認定하고 法務局에서는 其間 此에 伴한 諸般手續을 完了한結果 今月八日閣議에서 正式決定을 보게되엿 勅裁를仰하야 今十二日 制令第十六號로써 發布하고 來二十一日부터 施行하게되엇다。

二

思想犯保護觀察法의目的은 思想犯轉向者에 對하야는 轉向을確保시키고 非轉向者또는 準轉向者에對하야는 思想轉向을 指導促進하야 그들로하여금 完全한國民的自覺과 生活의確立을 圖謀하도록 指導保護하는데 잇다는데 從來의 單純한 思想犯防遏을爲한 警察監視等과는 本質的으로달러 積極的으로 本人을 指導救護한다는點이 本令의特異한點이라고한다。그保護觀察의手段方法으로 京城、平壤、大邱、咸興、淸津、光州、新義州의 七個處에 觀察所를 設置하고 此等觀察所에는 思想輔導官、保護司等 主務官吏以外에 關係方面人士로構成된 保護觀察審査會를 附設한다는데 本人을『保護觀察所 保護司에付하거나 保護者에게 引渡하거나 또는 保護團體 寺院、敎會、病院其他適當한者에 委託』하야 家庭、生計、健康、思想의推移等을 調査하는同時에 住居、交友또는 通信의 制限其他適當한條件遵守를 命하며 保護觀察에所用된 費用은 本人또는 本人을 扶養할義務잇는 者에게 그全部또는 一部를 徵收할수잇게되엿다。

三

勿論 思想犯保護觀察令은 社會改造를 目的으로한 思想犯을 對象으로하는 法令이니만치 社會的意義가 크다고할것이다。昭和三年以來 同十年까지 治安維持法違反事件으로 朝鮮內에서 檢擧된 者의總數는 一萬六千名假量되는데 그中에서 起訴猶豫言渡를 바든者、刑의 執行을 終了한者、또는 刑의 執行中 假出獄의 許諾을 바든者의 總數가 約六千四百에 達하여잇다는데 今番發布된 思想犯保護觀察法의 適用範圍도 重大事라할것이며 特히 本令의主旨가 當該各個人의 行動을 範圍乃至 自由拘束에잇스니만치 그影響은 一層重大할것이다。

四

思想犯保護觀察令은 이미發布되어 實施하기로 確定된것이므로 여기서 本令明文에對하야 日可否를 論함은 이미그時期가 느젓다고 認定하고 批評을 避하려하거니와 當局이 本令實施에當하야 特히 考慮하여야할點을 指摘하려한다。朝鮮에잇서서의 思想運動은 昭和三年을 最高峰으로 前後漸次 沈滯되어오던바 滿洲事變에依한 社會情勢의變化로 一層 그度를加하야 現在에와서는 거이 問題되지안흠은 周知의 事實이다。그러므로 이法令의 立法精神으로 보아서의 實效는 充分히 推測하거니와 本令實施에잇서서 그運用을 如何히하느냐에따라서는 漸次沈滯의길을 거러가는 思想運動에 逆效果를 誘發할수도잇다는點을 充分히 考慮할 必要가 잇스리라고 思惟한다。從來 朝鮮에 思想犯에 對하야는 엇던目的으로 思想的傾向이잇는者 特히 前科者에 對하야 여러가지로 監視또는 制裁를 加하여온 것이 事實인데 이러한 事實에 本人保護의 美名下에 自由拘束에依한 監視를 加하기쉬우며 本人에게 二重三重의 拘束을 加하게될 念慮가 업지안타。本令實施에 所用되는 費用을 本人에게 徵收할수잇게되엿스니 그運用上의 慣例에 쫏차서 本人의 生活에 負擔을 增加하지안토록 考慮하기를 바란다。

英帝退位의波紋

完全한獨立으로 愛蘭新憲法提出

英帝代表인愛蘭總督制廢止

國內問題介入拒否

【더불린十一日發同盟】愛蘭自由國首相데·발레라氏는 十一日 午後自由國會에 對하야 自由國新憲法案을 提出하엿다 新憲法案에 잇서서는 依然大英聯邦의 紐帶를認定하고잇다 英本國政府의代表인 總督을 抹殺하야『完全한獨立』으로 第一步를나가고잇다 法案內容은 다음과갓다

一、愛蘭自由國은 그레잇뿌리텐 濠洲聯邦 加奈陀 뉴질랜드 南阿聯邦과의 關係를 維持하는 限度 이等各國에 對하야 承認된外交使節及領事를 任免할權利를 享受하는 限以上의 本目的에 對하야 英帝를承認함

一、英帝의代表인『愛蘭總督』制를廢止함

一、總督의 權利義務는 이를愛蘭國會議長에게 移管하며 議長은 法律案에對한 署名 議會解散의權限을 賦與함

一、其他國家의 元首로歸屬하는 權限은 모도다 愛蘭大統領(首相)에게 歸屬함

新憲法은 十三日本會議에서 可決될豫定인데 新憲法成立同時에 事實上英帝의名稱은 內政上에는 一切抹殺케될것이다

(寫眞은 데·발레라氏)

【더불린十一日發同盟】愛蘭自由國首相 데·발레라氏는 十日 自由國政府는 요옥公殿下의 御踐祚를 承認하나 國際關係에 關한限 一切御名을 使用치안는다는 旨를 發表하엿다 右는 英國政府의 愛蘭自由國의 國內問題의 介入拒絶을 表明한것이라고 觀測된다 그리고 愛蘭自由國은 英國政府에 對하야『英國政府가 取한 手續과 各自治領政府의 웨스트·민스터憲章에 基하야 取한 立法手段에 服從할수는업다 特히 웨스트·민스터憲章에는 愛蘭自由國憲法을 包含하지안헛스므로 新立法을 必要한다』는 旨를 通告하엿다 愛蘭政府는 十二日議會를 召集하고 行政權에 關한 新憲法案을 提出할터이다

居中調停成功을 獨政府는疑問視

볼쉐비즘에對한防壁으로써 依然히叛軍政府支持

【伯林十一日發同盟】獨逸政府는 英佛兩國政府의 西班牙內亂居中調停提議에 對하야 아직 回答을 發하지안헛스나 政界方面의 意見을 綜合하면 左와如히 居中調停成功에는 多大한疑問을 抱懷하고잇다

一、獨逸政府는勿論 西班牙內亂이 速히 終熄되기를希望한다 그러나 居中調停이 果然成功할는지는 疑問이다 目下義勇軍派遣이 問題되엿스나 義勇軍派遣 ...

獨、伊兩國政府의 叛軍援助를痛擊

西外相、英佛兩國의居中調停의勞를感謝!

聯盟理事會公開會議

【쥬네브十一日發同盟】聯盟理事會는 十一日午前十時半 駐英智利公使에드와드司會下에 公開會議를再開하고 劈頭에 西班牙代表델바요外相은 英佛兩國政府가 西班牙內亂 居中調停을 行한데對하야 謝意를表한後 西班牙內亂의慘狀과 獨伊兩國政府의 叛軍援助의實情을 痛擊하야曰 西班牙國內는 팟시스트의空爆으로 이미數萬政府軍이 戰死를遂하엿다 不干涉協定이 現存함에도不拘하고 某某國은 팟시스트軍에對하야 着着軍需品을 供給하는狀態임으로 바야흐로 西班牙領土內에잇서서 國際戰爭이 展開되려한다 그리고 팟시스트軍은 毒瓦斯를使用하야 無辜한人民에까지 被害를加하고잇다 獨伊兩國政府는 現在 발레아리群島를 占據하고 西班牙를 征服할時에는 同群島는勿論 西班牙各地의海軍根據地를 其手中에 노흘것이다

다음에 同外相은 獨伊兩國政府의叛軍政權承認을 痛擊한後 理事會召集을 要請하게된 事情을 說明하야曰 聯盟規約은 팟시스트의 侵略을 阻止할수 업섯다 그러나 國際紛爭에 對하여는 適用할수잇슬것이다 바야흐로 一刻이라도猶豫할時期는 아니다 라고 델바요外相의 演說로서 理事會는 一日午後五時半에 散會하엿다 議長 에드와드氏는 마드리드外交團과 一般民의 撤收를 爲하야 國際赤十字와 協力할委員會設置에 關한 決議案을 提出할터이다

트로츠키居住를 諸威政府拒否

카탈로니아政廳도拒否

【사라만카十一日發同盟】極左理論家레온·트로츠키氏는 諸威政府로부터 十二月二十五日以內 同國在住를 禁止當햇슴으로 ...

英前帝、驅逐艦으로 포ー츠머스港出發

【포츠머스十二日午前三時半發至急同盟】에드와드八世는 윈저ー公으로서 十二日 驅逐艦 퓨리ー號에 座乘하야 포츠머스港을 出發하엿다 그後의 情報에依하면 윈저ー公의 行先은 全然不明이다 前帝의 御希望으로 御行具의 方向은 示하지안코 何處에 發送되엿는지 全然 不明이다 前帝는 十一日 深夜도버海峽을 渡하야 佛國에 건느신것이 아닌가 傳하는데 前帝의 乘用機『飛龍號』는 프이렌느대大佐指揮下에 十一日午後三時半 포ー드·벨베리아離宮가까히 飛行場을 出發하야 南方으로 向하야 飛去하엿다 前帝에 漸次 訣別을 참으로 愛情하는 國民은 朝來 離宮前에 群集하야 警戒에 當하고잇는 守衛에 前帝에 御訣別하는 上書를 依賴하는等 눈물겨운 情景을 보이엇다 그中 一紳士는 自動車로 離宮前에 모라 올리여달라고 花束을 守衛에 依賴하고 떠나갓다 前帝御側近人들은 아즉 그態度를 決定하지 안헛스나 多年 前帝御側에 奉仕한 護衛는 十一日 辭職하고 離宮을 辭去하엿다

前帝、御母陛下等과 最後의訣別晚餐會

【倫敦十一日發同盟】에드와드八世께서는 十一月에 百有餘日에 亘한 御治世를 終了하사 午後一時五十二分으로써 一平民에드와드·윈자ー氏로 되시압섯는데 國務關係의 殘務를 御處理하압신後 午後八時十二分 自動車로 벨베리야離宮을 御出發하사 윈자ー公國王앞·못리에 나압시엿다 메리皇太后陛下를 비롯하사 皇弟殿下及 윈자ー宮 皇后아스코ー伯은 이미御到着을 기다리는 模樣인데 前帝의 入御와 同時에 內訣別의 晩餐會에 臨하시사 御歡談하압시고 午後十時에는 前帝 에드와드陛下로서 全國民에 訣別의辭를 述하압시엿다 放送終了後 ...

英國皇太后陛下 國民에感謝의멧세지

【倫敦十一日發同盟】國母메리皇太后陛下께서는 에드와드八世의 御身邊을 圍繞한事件이 重大化한以來 御心痛하시고 御悲嘆하압시사 말보로ー·하우스기피 御趣味의 編物細物로 겨우 御疲勞를 慰勞하시고 계신模樣인데 事態의 歸趨하는바에 對하야 御慈心이 特히 기프시엿다 에드와드八世가 御退位하사 皇弟요옥公殿下가 죠ー지六世로서 踐祚하압시기로되엿는데 十日夜 特히 英國帝國에 멧세지를 御發表하사 忠良한國民의 熱誠에 謝意를 表明하압시엿다 멧세지 內容은 如左하다

如斯한 不安한때에 際會하야 나의周圍에 集中한 同情에는 感動함을 禁할수업다 나는 國民에게 感謝의 멧세지를 보내는것이다 아직 一個年도되지못하는데 그當時의 큰 苦痛에 對하야 나를 協力하야 諸君의同情과愛情과는 今回에도 버려지지안코 나의힘이 되고 또 支柱가되여주엇다 요옥公이 自己의 重責을 斷念하는것이 自己의 義務이라고 思惟하게되엿슬때 母로써 나의 心中이 如何히 悲歎하엿는가 再言할必要가 업슬것이다 사랑하는 아들이 이 決心을 堅持하기까지 如何히 煩悶하엿는가는 諸君도 充分히 知할 것이라 思惟되는데 나의子息이 永年 自己國家를 爲하야 自己의帝國을 爲하야 如何한 熱意로써 奉仕하고 또貢獻하고자 努力하엿는가 充分히 記憶하기를 바라다 諸君은 心中에 恒常 感謝의 念으로서 에드와드八世를 記憶하여 주실로생각한다 나는 全然 突然, 또 진실로 悲痛한 事情下에 王位에 御即位하게된 皇弟를 諸君에게 보내고자한다 諸君은 나의 親愛하는 夫君에 對하야 어데까지든지 忠誠을 다하여 준 바와 同樣으로 新帝요옥公에 對하야도 衷心으로 忠誠을 다하기를 바란다

各參議官에게 海軍豫算內示

【東京電話同盟】海軍에서는 十二日午前十一時 霞關海相官邸에 大角、野村、末次、高橋、藤田各軍事參議官을 招致하고 明年度海軍豫算의內示를 行할터인데 同日은 永野海相 島田軍令部次長 豐田軍務局長以下 首腦部가 出席 海相으로부터 無條約第一年을 出發할 明年度의海軍豫算案에 對하야 詳細한 說明과 意見을 求할터인데 아직 十四日午後六時부터 貴衆兩院海軍出身議員에對하야 豫算內示를 行할터이다

鴨綠江水力發電은 朝滿合資로

滿洲國東邊道大野總監談

大野總監은 明年度豫算及其他政務에 關하야 總督府와 打合하기爲하야 天谷秘書官을 帶同하고 十二日午後四時十五分 京城着列車로 來城하엿는데 車中에서 左와 如히 말하엿다

今回의 來京은 特別히 用件이 잇는것이 아니다 大體로 ... 鴨綠江의 水力發電에 對하여는 ... 朝鮮滿洲兩側이 合資로 ... 二百萬圓 ... 二千五百萬圓이나 七千五百萬圓 ...

定例局長會議

總督府定例局長會議는 十二日午前十時半부터 第三會議室에서 開會하야 政務總監으로부터 滿洲國出張에 關하야 鴨綠、豆滿兩江에 關한 協定調印과 關한 經過報告가 잇고 ...

外務省의聲明에

中國紙一齊反對宣傳

【上海十二日發同盟】外務省聲明에 對하야 中國紙는 一齊히 反對宣傳을 ...

米穀顧問會議

【東京電話同盟】米穀顧問會議는 十二日午前十時부터 農相官邸에서 開催 荷見局長으로부터

一、米穀自治管理法施行의 準備狀況

一、公定米價決定에 當하야 家計米價採用에 關한 告示事項

一、米穀取引所改善對策으로 配給調整協議會第二部會에서 佐藤、中野案에 基하야 日本米穀配給株式會社에 對하야 特別委員會에서 具體案을 作成한經緯

一、穀物國營檢査에 關한件 等에 對하야 詳細說明하고 同二時散會하엿다 今日은 上山滿之進、酒井忠亮兩氏는 缺席하고 各顧問으로부터 種種 質問도잇고 希望도 만헛슴으로 來十四日午後一時부터 顧問會議를 再開하기로되엿다

本田少將着任

【上海十二日發同盟】新任駐中大使館附海軍武官 本田忠雄少將은 十二日午後三時 上海着長崎丸으로 着任하엿다

辭令

遞信副事務官(五等) 淺原貞紀
任遞信局庶務課長
命遞信事務官(四等)
(釜山)同 小川栗次
命釜山郵便局長事務取扱
任道理事官(六等)
(慶南)道警視 西田豊彦
命全羅北道在勤
任道警視(六等)
(新義州)司稅官 坂本晃
命慶尙南道在勤
(大邱)稅務監督局屬 高橋諦
任司稅官(七等)
補新義州稅務署長
(全北)道理事官 阿部達一
任道理事官(七等)
命慶尙南道在勤
慶尙南道屬 豊田定雄
命慶尙南道在勤
道理事官 ...人
依願免本官

人事·集會

▲金光洙氏(本社營業局長)十三日午前三時히까리로大邱에出張
▲三橋警務局長 十二日午後五時半府民館에總督府出入記者團을招待

井上英語講義錄

月一圓廿錢·英語レコード贈呈

內容見本進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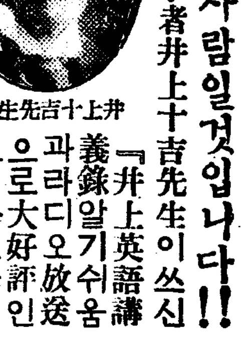
드(無代贈呈)로 自宅서獨習하면
○一個月로英語를읽을수잇고
○二個月로英語를쓸수잇고
○三個月로英語를말할수잇다
이가리홀융히熟達할수잇슴니다
먼저內容見本을一覽하시라

特別附錄贈呈
井上英語讀本(六冊)
英語レコード面(十二冊)
英文復習帳(六冊)
英習字帳(二冊)
英語單語カード
受驗單語カード
受驗熟語カード
井上英和小辭典(六冊)
月刊雜誌イングリシュ
米國官選讀本集(一冊)

講義錄月二回雜誌一回 月一圓卄錢

葉書로申込하면 七十頁以上의 豪華한見本을付送합니다

東京市麴町區富士見町三丁目十九番地
井上通信英語學校
振替東京三〇二八八番



井上十吉先生

『井上英語講義錄』은 井上十吉先生이 쓰신 講義錄일기쉬움과 라디오放送으로大好評인 도ー마스先生의英語레코ー

도라오는 世界의中心은 日本!!
只今이야말로 찬쓰, 모도世界의 言語『英語』를始作합시다 英語야 말로임이 近代人의 常識으로不可缺의것 現中學以上에는 가장 重要한學科입니다 今日以後 英語를아지못하는분은立身의第一資格을 이러버린사람일것입니다!!
日本一의英學者井上十吉先生이

オリムピック決定の一九三六年 英語の必要を感ずること痛切!!

눈으로 귀로 自宅에서每日한時間씩배호라!!
世界의言語 立身의武器 英語는 新春은반듯이貴下의것!!

井上英語敎育레코ー드 吹込者 도ー마스敎授

好職業

男女淺近不問自宅執筆業○勤人學生副業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軌線生駒停留場前 博文社

●手紙上手は一生の德!
手紙の事なら何んでも解る大評判の手紙の本

實用新案手紙大辭典 (不許複製)

交際や商取引に手紙が上手だと人から信用され何事もうまく世渡りが出來るが、下手では幾ら同じ事を書いても馬鹿にされ誤解を招く...

特價一圓 ...

現代出版社
いろは引大辭典 實用漢和大辭典 進呈
大阪市東淀川區西町 振替大阪五六〇一四番

靑少年通信社員募集

小學卒業程度自宅依務可能 ...
和歌山市新內町 昭和通信社

年賦定期貸付
普通銀行業務
京城府南大門通二丁目百四十番地ノ一
株式會社 朝鮮殖産銀行
資本金參千萬圓
頭取 有賀光豊
日本銀行代理店
日本勸業銀行代理店
朝鮮貯蓄銀行代理店
全鮮各地에支店出張所六十四個所及內地大阪에支店잇슴

商標 千 고초가루 都賣
金千壽商店製粉部
時價表請求하시면 送呈하겟습니다
振替金山一五五三番

團成社
赤道를넘어서
시스코키ー드(깽그創生)
가지노、도、巴里

第一劇場
電話光化門一七五五番
黑豹脫走曲

桃花劇場
眞珠목거리
接吻과化粧

本社年中事業 文字普及運動!

農閑期各地農村에 教材五十萬部配布

十三日各支分局에發送開始

조선일보사에서는 해마다 계속적으로 조선안 글자모르는 대중을 계몽하기 위하야 문자보급의 사업을 힘써오든터이데 금번에도 겨울의 농한기(農閑期)를 따라서 문자보급교재 (文字普及敎材)를 배포하기로되엿다 그래서 십삼일부로 오십만부를 발행하야 전조선오백여개소의 본사지국 분국에 분배반포할터이다 이 교재는 벌서 해마다 만흔 호평을 바뎌오든것으로 동기휴가에 귀향하는 학생제군으로서 그 고향의 글몰르는 형제자매를 깨워 가라치는데나 농촌강습소 또는 야학교 기타 강습소가튼데서 쓰기로적당하게 작성된것이다

『배워야 산다 아는것이 힘이다』라는 『슬로간(표어)』미트로모아드시라! 그리하야 무식이라는 못그럽은 명칭을 빨리버서버리시라! 이교재를 원하는이는 본사로나 각지 분국으로나 청구하면 보내드리이나 한사람아페 다섯권이상은 응치안키로되엿스며 한권에 대하야 우송료(郵送料)로 일전우표한장식동봉하야 청구하기를 바란다

(사진은 배부할교재)

滿蘇國境在住의 朝鮮人後退案中止

關東軍과의折衝成功

일즉 관동군의방침에 의하야 소만(蘇滿)국경만주국측 일대에 산재한 약이십만조선인을 군사상관계와 사상상관계로 국경으로부터 이십리안으로 전부이주식히게되야 총독부에서도 이것에부득이 승인하엿다함은 긔보한바와갓다

그런데 그후총독부에서는 이문제에대하야 관동군과 만주국과 절충한결과 이것을전연그만두기로되엇다한다 만일 소만국경에잇는 조선인을 전긔와가티 이십리안으로 후퇴(後退)식힌다면이것은 만주국에잇서서 조선인을 정치적으로 차별하는결과가 될뿐아니라 최근에협정된 도문(圖們)회의의 조만일여 (朝滿一如)의 정신상으로보아 자미업다하야 그간경무국과 외사과에서 수차관동군과 교섭한결과 관동군에서도최근에 조선인에대한 리해도점차조와저가는 터임으로 총독부의요망을 듯게되야 전긔방침은드듸어 그만두기로되엿다한다

海州翠野間線 開通試運轉

【海州】취야라하면 황해도서부에잇스면서 시장의 면서가질고 곡물집산의왕성등으로 도내에서 굴지하는 중요시장이며 현재호수는 천호에달하고 인구는사천백여명인바 조선철도회사에서는지난이월부터 총공사비칠십이만여원으로 해주 취야 주항해선연장공사를 착수하야 십이월까지완정하기에약구개월의 시일을 경하엿스며선로연장은 십육키로록부이라한다 긔자는처음차를 시승키위하야 십이일 오전칠시반에 취야역에도착하야 시승원을 교화한채 칠시오십오분발 렬차속에뛰여갓든엇다

긔차는 동으로질주하야 시속 십육키로의 속도로 취야평야사『키로』플부를 한숨에 횡단돌판하야 서선역(西鮮驛)에다다랏다 격난시간은 칠분이엿다 약간의 승강객을 기다려 기차는또다시 영전평야(永田平野)를연헤끼고동주하야 문정역(文井驛)에멈추엇스니 서선서여기까지는 삼키로팔부인데 특별호을 경리엿다 이문정역은 신천(信川)바변의 기로지점이며 신파사(新光寺)입구지대로 장래발전상 유망처라한다 작간 숨을 태운차는 다시 백나절 두괴고개의 비탈길을두판히 기어벌어 서해주역(西海州驛)까지 삼키로 목부로 간에 기차 삭키로는사부이대잇든 해주(海州)역을 도 목분에 주파하엿는데 떼는 동여년시삼삼구분으로 취야 해주가구파시간은 이십분간을 경하엿스며 취야에서는 오후일시부터개통식과 축하회가 성대히 버려지게 라한다

國有林盜伐嫌疑 木手等檢擧

【鎭南浦】삭주군외남면 골등산(朔州郡外南面橋洞金山)에서 목물업하는김모(金某)외사인은 칠일오후 오시경 삭주경찰의손에 검속되엿는데 그자세한 내용은 알수업스나 탐문한바에의하면국유림청 마산(國有林天摩山)에서 나무를 도벌하야 교통산에 매도한사실이 발각되여 문본증거를 압수하엿스며 계속하야 엄중한취조를받고 잇는중인데 동관할간수사이에도 관계가잇는듯하야 사건은동대한듯하다고하며 경찰에서는 비밀에부처 엄중히조사중이라한다

仁川江華間 陸地化設計!

世界一의鹽田과 潮水利用의發電計畫

總工費는四千萬圓

市內弘中氏가當局에尨大한設計書提出

인천과 강화도(江華島)사이를 련결시켜 륙지화(陸地化)한다는『빅·뉴-쓰』와 이에딸은설계도—

시내 한강통(漢江通)삼정목삼번지이십호 홍중량일(弘中良一)씨는 얼마전에 강화도를 긔점으로하야 인천군해일대를 륙지화하야가지고 세계일의 천일염전(天日鹽田)과 조수(潮水)를리용하야 대규모의전력(電力)을발전시켜 경인지방을 불야성의공업지대로 맨들겟다는 설계서를 총독부에 제출하얏다는데 이에 대하야 총독부에서는 지난사일에 관계관청에대하야 조사를의뢰하얏다 이설계서의내용을 소개하면

그구역을 인천부 부천군 북도면 영종도 서곳면과 김포군 금단면 양촌면 대곳면 월곳면 및 강화군 부내면 선원면 불은면 길상면 하도면 (仁川府—富川郡 北島面 永宗島 西串面 金浦郡 黔丹面 陽村面 大串面 月串面 江華郡 府內面 仙源面 佛恩面 吉祥面 下道面)에 걸친 이만이천륙백이십일정보(二二、六二一町步)와 그외 보유지로 팔천삼백오십오정보(保留地八、三五五町步)함하야 삼만구백칠십륙정보 라는 거창한 지대와 삼천팔백십구만 일천팔백사십팔원이라는 거대한 돈을던저 락 륙억만근(六億萬斤)의 천일염과 십삼만일천마력의 동력을 부생식히여 천일분에서 공업용으로소모되는 소금을 제공하려라하며 비료 군수공업 (液體空氣, 肥料及軍需工業)을 경인지방에 일으키여 문자그대로의 불야성을만들려는것이다 다시 제이차사업으로 사억만근의 천일염을 만들어 현재 인도(印度)방면으로부터 수입하는 공업염을 완전히 벗어나는동시에 세계에서 제살위로 이름이엇는인천해의 조수의락차(落差)삼십일척사촌을 완전히 리용을 한다면 최대한도 이십이만륙천키(二十二萬六千基)의 전력을 어더 전조선에 공급하려하는 설계로써 이를 바든 당국으로도 계획이방대한만큼 실지조사에 두통을 알른다하며 황해를 통하는 협해는 완전히 륙지화하야 이가실현되는날에는 강화도로써의 생명은 업서짐과동시에 대륙에 강회가 들어안질것이라하며 이사업은 허가가나오는대로 홍중씨가 동방조련산업회사(東邦潮力産業會社)를 설립하야실현에 옴길터이라한다

中國人三名을 斫殺後金品強奪

십일일밤 평남룡강군내에

戰慄할殺人強盜事件

십일일밤부터 십이일 아츰까지 사이에 평남룡강군 해운면 온정리(龍岡郡海雲面溫井里)중국인 야채장수 왕계천(王桂川)(三七)의 집에 어떤자가 침입하야 잠자고잇는 전긔 왕계천과 그의안해와 아들세명을 독긔로 참살하고 집안을 삿삿치뒤지고 금품을 모조리 빼아서갓는데 십이일아츰에 이사실을안 룡강경찰서에서는곳서장이하전서원이출동하야 범인(犯人)을잡으라고 대활동중이나 피해자가모다 죽어버려서 사건진상을알기어려울뿐더러 강탈된 금품도 얼마인지도 알수업다고한다

貨物車에치여 六十老人即死

【大邱】지난십일오후팔시 경북문경(聞慶)읍시장도로에서 경북자동차주식회사 김천출장소 화물자동차 일오팔호차를 김범룡(金範龍)(二四)이가 운전하다가 잘못하야 부근을 통행하든 양진학(梁辰學)(六〇)을치여서 즉사케하엿다는바 전긔 가해자는 무면허운전이엿슴 상해치사죄로 문경경찰서에서 취조중이라고한다

慶北地方에大雪 一部交通杜絶

【大邱】경북의성(義城)청송(靑松)등지에는 지난십일부터 눈이오기시작하야 벌서 륙미리에 달하는바 이로인하야 의성청송간 의성 화목(和睦)간은 교통이 두절되엿다고한다

大衆食糧 粟價가 暴騰·米價를壓倒

每斤에一錢內外나비싼時勢

春窮期饑饉現象은難免

오갓 농작물이 면에발은못이근년에업는 대풍작을 만난금년의 풍년의되풀이도 추운겨울부터본격적으로 전개되려는 황이다 외특히 풍년이들엇다면 세민들의 식량 특히 농사는 계속을굿짓국도 손에남은식량이업서서 허덕이는 농가들의 식량난은 매우참담할것이 예상되고잇다 최근의 사정을보면 중부이북농촌 농민들의유일한식량인 만주서들어오는것이좁쌀은말하면 매년근에업는실적으로 정조한근래 전통을 리하는데비하면 배근에일전내외나 빗싼시세이다 시중을가개의소매시세를 들어보면 한메미상품이 한가마 다섯말드리에 십사원팔십전으로 한말에이원칠십륙전꼴인데 좁쌀은한포대 (약여섯말반) 에십오원으로한말에이원이십여전꼴이나되여 백미와좁쌀의가격은 전에업는 절근되지세를 보이고잇다 이가리 좁쌀이올흔리유로 전하는바를거련 조선내의 좁쌀이 원체 흉작인리에 만주에서는 대두 (大豆) 등의 만주특산물이 모다 올흔때문에 좁쌀도 아프로는 롯것을 예상하고 산지에서잘 지안코 도내농고와 불중국의 혹세가 불안정하야 불중국과 기하오지에서조가나올지안는것등의 리유라고한다 하여간 조건으로서는 세궁민의 량식으로 매백근의 일원이라는 고흥의관세를 부담하면서까지 사먹고왓든것이 이처럼 시세가 올으기 때문에 궁농들의 식량은 일층 절박한상태에 빠질것은 물론이다 그리고 전하야 조선은 쌀농사가 큰풍년을만나 농가에서는 매지주를 제하고는 전에쌀밥을 먹든 사람들중에서도 조밥을 먹는것이 태만하집편에잇고 또그보다도 소지주중에서는 환금책(換金策)으로도가한쌀말은모다 팔어버리지안흐면안되는상태에잇는때 그대선미올긔식량으로 좁쌀이 백미나거이가튼가격으로 폭등하엿다는것은 큰문제이다 지금당장의문제로도중대하거니와아프로이월삼일월부터춘궁까지는 큰긔근이잇슬것으로예상되고잇다 당국에서는 금번은 토목공사등으로 일산포가잇스리라하야 어느정도까지의 긔근의 완화를 보리라고도하나 과연해를넘으면서춘궁긔에들어가서 식량난은다시어떨 정세를 나타내일런지 문제이다 일방에는 세민식량 문제의 완화책으로 만주속의 수입 관세의 철폐도 전부터 만히 주창되고잇스나 정책상 용이히 철폐될것갓지도안흔 상태에잇다。

三陟에私設燈臺

바다를직힌지三年만에뜻이룬

陳在允氏血汗奮鬪記

【三陟】아참이면 배떠나는소래와 저녁에는갈매기의 노래소리에 하로를보내는 삼척의 가장 험준한 원덕면 초곡리 (遠德面草谷里) 어촌연안을 항해(航海)하는 선박이 가장위험하게여이는 밤길의 인도를 하여주기위하야 녀뎌지모안흔 주머니를기우려가며 마을젊은이와가티 삼년동안이나 바닷가 산상에 올라가 불을켜서 표식(標識)을이루워준 마치 소설과가튼 아름다운 마음의 젊은이가잇다 본적을 경남통영군 동부면학동리(慶南統營郡東部面鶴東里)에두고 전긔 초곡(草谷)에와서 거주하는진재윤(陳在允)(三五)씨는 벌서 이곳에 온지 륙칠년이나 되다는바 지난 소화팔년봄에 이마을에서 멀지 안흔 맹방(孟房)이라는 바다가에는 때마침항해하든 철도침목(鐵道枕木)을만재한 대련환(大連丸)이 처음항로에 표식을 가라지못하야 마칩내 좌초하여버린일이 잇섯슬뿐외라 밤에 출입하든 선박들이 길을 찾지못하야 조난을 당한일이 한두번이 아니엇다 여기에 깨달은바잇서 씨는 마을의 젊은이와가티 청년단을 조직하여 가지고 등대건설을 제의하야 자기가 비용태반을 담당하고 마침내 뜻을이루엇스나 본시단체의 긔본금도 업슬뿐만아니라 일개월에 드는 석유갑만하여도 오원이 갓가이 드니 처음에는 지방과단체에서도 도와주엇스나 반년이가고 일년이 지나는동안 누구하나 물질적으로 원조하여주는 사람도 업시 다만 청년단원이 차례로 마을에서 한오리나 되는 등대에 가서 불을 켜주는것을 큰일으로 삼고 넉넉지 못한 생활에서 매일매일 등대를 직히는 마음으로 물질적으로 정신적으로 그의 전정신을 밧치여왓다 그동안에번이나 중지할사정에 다첫스나 이등대불로 인하야 구조를 어뎟다는 바다에서 도라온 선부들의 깃븐얼골을 볼때 다시 결심을 하고 계속하여 왓다한다 이등대가 된이후 이불을 표식으로 죽을지경에서 구사의일생으로 사려낫다는 실화(實話)는 너무도 그수가 만타한다 이사실이 차차관계방면에 선전되자 마침내 강원도토목과에서와 총독부긔사의 세밀한실지측량이 잇슨후 소화십년시월십사일 관보에 발포되자 동시에 체해제오삼이칠호의 일(鐵海第五三二七號의一)로 허가되여 긔선까지도 이등대불로표식을 삼고 항해하게되엿다 한다

이제그허가장면에 긔록된위치과 타는 다음과갓다

位置 [illegible]草谷里大山頂
燈高 十二尺
燈質 石油燈 [illegible]
光達距離 十浬
工事費 一百七十圓
附近沿岸出入船舶 四五〇隻

대략 삼긔한바와가튼데 원래이 어업조합(遠德漁業組合)에서 십년도(十年度)에 이십원보조가 잇슨후 아직당국에서는 아무보조가업스나 근근 총독부로부터서도 적당한 보조가잇스리라는바 사설등대로서 총독부의 허가를 어뎌 보조를밧게되는 등대는전조선에도 아직 매가업다는바 동해안이동도로로 지나는 사람들이면 삼척읍에서 남으로오십리를지난초곡리、마을뒤)도로에서 멀리 바다까지 높흔 산우에 한빗나는 적은등대를 바라볼수잇스니 이것이 씨의삼년간 차허노후동적의 상징(表徵)이다

(사진은 초곡리뒤산으로 좌한이동도로에서 바다쪽으로향한등대와(×)창설자 진재윤씨)

孝子町西大門間電車 光化門까지延長

配車量이얼마느는폭

시내 전차선로중 효자정 (孝子町)종점에서 경성역(京城驛)가는 전차는 종전에는 경성역을 지나 서대문서(西大門署)압까지 가서는 그곳에서 다시돌아서서 경성역아풀지나 효자정으로 도라가던것인데 십이일부터는 서대문서아페서 돌아서지안코그대로 운전해나가서 광화문통 (光化門通)까지와서 돌아서게 되엿다 이로써 여태까지보다 서대문서압과 광화문통까지의 전차의 배차도수가 늘어슬뿐더러가령경성역에서 서대문정 (西大門町)까지가는 손님들이면 그전과가티 서대문서 아페서 바꾸어타지안허도 그대로바로 갈수잇게되여 여러가지로 그전보다편리하게되엿다

非常警戒線에 걸린注文詐欺犯

十二日밤昭格町에서

십이일오후다섯시경 시내종로서 년말특별경계망을 펴고잇든중에 시내소격정(昭格町)일백오십사번지압해서 시내명치정 (明治町) 일정목 륙십삼번지 경성라사합명회사점원 왕영천 (王永天)이가도적이야 외치면서 어떤 남자한명을 추격하여오는것을마츰 경게하고잇던 순사가 이를 붓잡아다가 취조한결과그는 일정한 주소가업는 전과사범의김경섭(金京燮)(三九)으로서 금년봄부터 시내각처를 횡행하면서 대담하게 주문사긔를 하고 교묘히수사망을 돌코 나오던자인데 전긔라사회사로부터 약삼십원어치 라사를 시내도염정(都染町)이십팔번지압호로 배달식힌다음 이를 사취하여가지고 달아나든것을 필두로 약이십여회의 주문사긔를 한것이 판명되엿는바경찰에서는 아직도계속하야여죄를취조중이다

御訣別放送을 듯는심夫人

【칸二十一日發同盟】『심프손』부인은 십일일 오후에 보호인을 동반하야 자동차를 타고서『뷔라·데·뷔에』를 출발하야 잠간 교외를 『드라이브』한뒤『뷔에』에 도라가서 밤에는 수명의 손님과 함께『에드와드』팔세의 어방송을 한마듸도 빠트리지안흘양으로 귀를기우리고잇섯는데 방송이끗나자 자리에그냥 안저잇슬수 업는듯이 쪽쪽히 자긔방으로 드러가버렷다 한다

離婚効力發生前에는 殿下와不相逢

심夫人側近者談話

【칸二十一日發同盟】『심프손』부인 측근자는 부인의 동정과금후의 예정에 대하야 십일일에 신문긔자단에게 다음과 가티이야기하엿다

『심프손부인은 리혼판결의효력이 발생하기까지 『에드와드』전하에게 맛나지안흘터이며 『에드와드』전하도 『칸느』에 오시지안흘터이다 이제잇서서는 아모것도 모르겟다 부인의 『욧트』가 『에드와드』전하를 태우고저 『몬테칼로』에서 기다리고 잇다는 소문은 전연 사실무근의소리다 부인은 아직 삼사주일동안은 이곳에 체재할 예정이다 부인은 이제 다소 피곤하여잇스나 건강하다

日曜講話

◇貞洞第一禮拜堂 午前十一時
當先者何也? 金顯浩 氏
午後七時
基督軍兵의準備 洪淳浩 氏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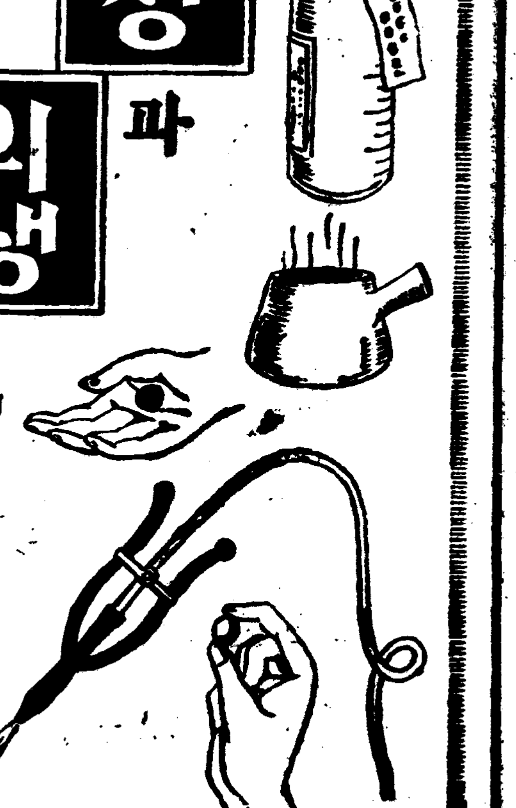
◇石橋教會 午前十一時
愛隣 朴濟璟 氏
午後七時
豐國의斷岸 金熙運 氏

◇尙洞教會 朝間
天理難測 홈스 氏
夕間
未定 崔活蘭 氏

◇中央教會 午前十一時
未定 邊永瑞 氏
午後七時
神의經綸과人의經綸 金永燮 氏

◇基督教阿峴教會 午前十一時
예수의精神 崔錫善 氏
午後七時
엇지할고 李寅範 氏

가정과위생



부인병에걸니면반듯이 대하증이생기게된다

먹는약으로는절대낫지안튼부인병도 帝大病院에서쓰는약으로곳치시면자택에서도간단히근치되여버립니다

東京木村病院長 醫學博士 木村仁

치운바람이 몸속까지스며드든 요새에 어떠튼몸을 따뜻한 아랫목에서 녹이실때마다 새삼스럽게 병마의고통을 늣기실줄밋슴니다

몸전신이 녹은하고 두통이나며 팔다리와 허리 또는 아랫배가 쑤시고 압흠뿐만아니라 몸소리칠만큼 악취나는대하증(냉증)이 흘으게될것입니다。 혹이 녀자면 이런증세가 잇거니하고 생각하시나 이것은 남이츰다고『냉』이 흘으는것이 아니고 반듯이 부인병때문에 그런것입니다。

즉 병균이 국부안에 들어가서 자궁내에 흠집을만들고 붓게만들며 압흠을 늣기게만드는것입으로 그곳에서 생긴 진물과 고름이 즉대하증(냉증)입니다 그럼으로 이대하증(냉증)에는 수만흔 병균이석겨나오며 이것의 분량이 만어젓다 적어젓다하는데 병세는 점점심하게되어가며 더구나 새로 처음에는 코물가튼것이 나오다가 점점 푸르고 누르고 붉은피가섞겨나오게될때에는 병세는 몹시중하게된때입니다 그런고로 이

대하증이 잇스면 그것이가진 독소로『아해』를 못배이게되며 더구나녀자의 매력과 애교가 업서지게될뿐만아니라 부부화합에 자미를 모르게되며 드듸여 비참한 일평생을 보내시게됩니다

지금까지에는 흔이 부인병치료에

먹는약=탕약、가루약、물약 환약가튼것을 써서 곳치시라고 하셧스나

여러분이 이미 경험하신바와가티 조곰도 근치가 되지아니하엿슬것입니다 그것은 자궁속에 병균이 들어가서 생긴 부인병치료에 아모라 내복약을 퍼붓드시 먹어도 자궁속에 드러잇는 병균의 뿌리가 빠질이치가 잇겟습니까?

그러므로 먹는약으로는 병치료는 되지못하고 다만 어느정도로 몸을못하든가 배속을 좀 편하게하여줄뿐입니다 또는

의학상(醫學上)으로는 직접 그곳을 수술(手術)하는를명과 또는 직접 국부에 약을너어서 곳치는 두가지방법이 제일이나 수술은 의숙한 전문의사의 손으로해야만 유효하며 더구나 장구한 시일을 입원하여야되며 고통과막대한금전이드는 폐단이잇습니다。

그럿타고 적절치못한 약이면 어느것이라도 모다조흐냐하면 그럿치안습니다 즉 지금까지에는 우수한 약효를가진것이 업섯고 더구나 살균력(殺菌力)이 적어서 여러가지로 폐단이 만엇습니다。

더구나 민간에서보통 판매하고잇는약은 하나도 유명한 병원에서 쓰는약이아니고 모도가 일장일단의 유감이잇셋스니 즉

거문빗나는 넷슨약으로써딱딱함으로는닛키에 거북할만아니라 다녹지안코 찌거이가 남어서 나오며 거문약물은 흘너나와 속옷을를엄피고 국부근처를 끈적거리게하여주며 그루말미아마 가려운증의 피부병까지 덧치게하는것이엿습니다。 또는 다만 대하증만 빼어드리게하는것——그리하야 자궁속을 더욱 자극식혀서 병세를중하게하는수가만코 약한계를가지고 매칠식 쓰게하야 그 효험보과 위험함은 더욱 말할수업습니다

이리하야 민간에서 이것저것의 적당치못한약을 사용하시다가 병세를 아조 중하게만들어가지고 병원에차저오시는분들만히보다 이것은 치료약의선택을 잘못하신탓입니다 그러면

엇더케하여야 조흐냐하면帝大病院 十字病院 그외 유명한병원에서 실지치료에사용하여서 만족한자를 구원하고잇는약와세돈球를 쓰시사 곳치시면 곳 근치됩니다

「와세돈球」는 넷는약의결점을 모도 불처식히엇슬뿐만아니라 목록 집어내드시 자궁내의병균을 죽이고 그곳의혈기와 진물을 주쳐 약기운은 전신으로 퍼저서 모든 부인병증세를곳처줍니다

더구나 각가지의권위잇는병원의 림상치료보고에도 적확한효과를 증명하고잇슬뿐만아니라 내병원에서 림상치료를한결과 우수한 효험을어덧스며 외래환자들의게도집에서 사용케한결과 병원치료와 똑갓흔 치료효과를어덧슴으로 어느분이라도 안심하고자택에서 간편히 근치할수잇는약입니다

바라노니 전조선의專門醫師諸氏와 일반자택치료를원하시는분 번치료하여보시사 속히 근치하여주시기를 자신잇게권하는바임니다。

──와세돈球로만흔침자를구원하고잇는유명한病院을一部기록합니다──

東京帝國大學附屬病院
東北帝國大學附屬病院
京都帝國大學附屬病院
九州帝國大學附屬病院
日本醫科大學附屬病院
大阪醫科大學附屬病院
長崎醫科大學附屬病院
日本赤十字社 病院
東京鐵道病院
大阪鐵道病院
名古屋鐵道病院
仙臺鐵道病院
東京市電氣局病院
聖路加病院
橫濱十全病院
橫須賀市立病院
市立神戶市民病院
弘前市立病院
松本市立病院
大分縣立病院
大阪東條病院
聖바나바病院
岩手醫事病院
救世軍病院

병원치료와똑가튼치료가자택에서되는「와세돈球」

전문의사가 사용하는 부인병근치약인만큼 적확한 효과를 자기가 알수잇는약이니 색도고흘미라색으로 약한개를 국부속에 넛코 주무시면 아무해한가이업시 전부 녹아버리여서 직접환부에 작용하며 압흔곳과 흠집을 아물게하고 약기운으로 주무시는동안에 전신에 흡수되여서 모든증세를 다스리며 그것케 심한는 대하증과 아래배가 희근의뿌리가빠저서 근치됩니다 며 단시일안에 아조씻슨듯이병 부인병은 가정부인은 물론이요 처녀시대에도 걸니는것이오니병고에서 속히버서나시려는분 이라저약하고 아무염려업시도로 파용하시지못하신분은 남몰래용곳

처방문은 조희로 주저마시고大病院에서 쓰는약을 처음민간에 제공하는 『와세돈球』로 근치식혀주시고 그것을 널니 선전하여주시기바랍니다

『帝大病院使用와세돈球』의약가는 의구별이 잇사오나 특히本號독자우대로 送料二十錢식증정하시는분의게는 남어지送料를부담하야

十二日分—一圓二十錢
廿四日分—二圓三十錢
卅六日分—三圓四十錢
(病院用)一四四球入—十三圓

매큼이이월으로도 송약해드림니다 도한 어느가정에도 必要한 위생지식서류『가정에서 부인병을곳치는법』을조선글로 분에게도 거저드림니다

東京市芝區新橋四丁目十三 總代理店 合資會社 振替東京二三五〇九番

V—20

京城版

趙炳甲氏篤志

시내황금정(黃金町)이정목 삼번지 농장(農場)을 경영하는 조병갑(趙炳甲)씨는 십이일 현금 이백원을 세말동정금으로 본정서에가저왓다고한다

强窃盜逮捕만百件 北村"밤의守護者" 十四年間"딱때기"로警告하는 鍾路自警團의功績

시내 계부정(桂府町)일백칠십오번지외이호에 그사무소가잇는 북촌일대의 방범에힘쓰는 경성종로자경회(京城鍾路自警會)는 어번에그창립 십사주년을 마지하게되엿는바 이를 긔념키위하야 십이일 수만호에 배라를 맨들어 일반에 배포하엿스며 금후한층 더 그직책을 완전히하기를 긔하고잇다고한다 지내온 십사년동안 비가오나 눈이오나 길로는 밤 딱딱기는 야경소래와함께 서울의밤을 직히고온것으로 회재에방이 실로 오백사십사건이나되엿스며 회재를 발견한것이 륙십이건이엿고 강도체포가 두건절도체포가 구십사건 발견한 강도사건이두건 절도사건이 이십륙건에 달하엿다고하며 또는 습득물이 일백십팔건이고 보호한내는 사천칠백십사건의 다수에달하엿다고한다 자경회의공로가이와가티큰것이 잇섯스나 그회에서는 아직도 미급한점이적지안흠을 늣기며 일반이 만히 편달하여주기를 바란다고하며 특히 재경 이끈라하니만치 이점을만히 원해주기를 바란다고한다

卅五週年記念 盛大히擧行 興仁培材校의盛事

시내종로륙정목 흥인배재학교(興仁培材學校)는 명치삼십삼년 삼월 유지황중국(黃中國)씨외두사람이 창립한이래 금년까지 삼십오개성상을 마지함으로 이것을 긔념하기위하야 십이일오후 한시동교에서 창립삼십오주년긔념식을 거행하엿는데 래빈이삼백여명에달하엿스며 대성황을이루엇다

동교는 륙년제의보통학교정도로서 지금재학생이 삼백오십명이며 또밤에는 학령초과한녀자들의야학이잇는데 그수도륙십명에달한다 졸업생도 사백명이나 되어 이긔념식과함께 동교에서는 당일오전열시부터 오후네시까지에 학생성적품전람회도 여럿다고한다 (사진은 기념전람회장과 설립자 황중국씨(右)교장 한승원씨(左)

大金가진少年

황해도 해주군해주읍 사천리 중(殷崇甫)(一六)이라는소년은 오세 일일오전열시경에 저의아버지가 금융조합에 저금하고 오라는돈 이백십원을 가지고 서울구경을 떠나와서서 백록정(百祿町)일백삼십번지 국일(國一)려관에 묵고 잇던중 십이일새벽 그서의일제경계에 걸린돈들어 그서에서보호중이다

매저멀리고 민성식(閔成植)一층 여섯지에 그냥도망질하엿다 (一)에게주엇드니 주인에게 개맛기 소관본정서에서는 시내 각서에 지안코 가지고잇다가 십일일에야 지명수배하야 범인을 엄탐중이다

仁川署年末警戒網 初日에四十六名 窃盜嫌疑、不良靑年

【仁川】인천서의년말경계는 지난십일일부터 부내각요소에정복사복경관을 배치하고 엄중경계중인데 첫날 하로동안에 걸린자가 사십륙명에달하엿다 그중에는 절도혐의자를 비롯하야 부량청년배 혹은 주정군등이 만코 그중에는 의외의 범인도 잇다고한다

【仁川】인천서의년말경계는 지난십일일부터 부내각요소에 정사복경관을 배치하고 취조중이라는데 그중에는 의외의 범행자도포함되어잇슬뿐아니라인천 정계업자등의저소를 검색한결과 천서류지장(?)등로초만원을 올키위절도혐의자와 가족통향청소년등 한산하는인천의년말경계는경찰서도한사십륙명을 검속하야 차착 류치장으로부터시작되고잇다한다

可慮할學生行狀 十一月中에三十七件 市內本町署管內서

시내 본정서 소년항생계에서 십일월중 취급한 건수는 다음과 갓다

절도 한사람 유랑(遊蕩)스름 한사람 부랑자(浮浪者)세사람 폭력 아홉사람 모두설흔네사람으로 조선인 열일곱사람 일본내지인 열일곱사람으로 나노어저잇다 이중 시내모녀전(女專)학생의 절도사건이 하나잇다

범의 백석의(白石儀)(一七)로써 그는당일 전양조장숙직실에 침입하야 숙직원이자고잇는 그방에서 대담무쌍한행동으로 숙직의 양복오점을 절취도주하랴다가 체포된것이라한다

年末警戒第二夜 大膽無雙한窃盜

【仁川】년말경계망의 물샐틈업는그속을돌코다니다가체포된 대담무쌍한절도=인천서에서는 경성과 한가지보조를취하야 십일부터 년말경계를시작하엿다 제이일인 십이일 오전령시반경에 도산정(桃山町)조일양조장(朝日釀造場)담을 뛰어넘어나오는 장한일명을 순행하든 김석천(金石川)양순사가보고 그를체포코자하얏스나 장한은 절취품을 전부버리고 대화정(大和町)쪽을향하야 도주하는것을 약삼십분이나 추격한끄테 격투를하야 근근체포하엿다는대 그는 경남거

손님돈가지고 逃亡한뽀이

려행하는사람은 이런나쁜려관

妓生娼妓는百餘名增 女給은減少 本町署管內紅燈街變轉記

시내 본정서의 조사에의하면 십일월현재그관내에잇는 조선사람 기생(妓生) 창기(娼妓) 녀급(女給)의수는 다음과갓다

妓生	二七三人
娼妓	四一九人
女給	一一〇三人
合計	一七九五人

이것을 작년말에비하면 기생이 오십일명 창기칠십오명이 늘고 녀급칠명이 주럿다고한다 그리고 근래현저한것은 만주로부터 이동해드러오는 창기가 만타고한다 즉 그들의오는원인을드르면 대개영업지대가 만주국(滿洲國)벽지(僻地)인관계상 치안이아직 불안하야 영업할수가업다는것이 대다수이라고한다

仁川傳染病患者 十一月間에百廿八名 死亡者는廿九名

【仁川】인천은경성의 항문이요 또한 중국항로의기점이니만큼각종 전염병예방에 각별한노력을하야 전년보다 약일할가량줄어진모양이나 금번에도 일월이후 십일월까지 십일개월간의 전염병통계를보면 전염병마에걸린불행자가 백이십팔명에 사망이 이십구명에달한다는데 종별은다음과갓다

病名	發生	死亡
腸지부스	二五名	四名
發疹지부스	二名	—
猩紅熱	一一名	一名
지프테리야	三二名	六名
脊髓炎	三名	一名
赤痢	五五名	一七名
合計	一二八名	二九名

開城郵便局管內 集配時刻을改正

【開城】지난십이일 열일부터개성우편국 우편집배시각은 변경되엿는바 종래의일오전칠시삼십분출발의 일호편에 배달되든것은 일본내지、부산、대구방면의우편물로서 그날오후칠시 사십분에 국출발의 제삼호편에 배달되도록 개정되엿는고로 하로를빨리 바다보게되엿다 도시내포스터』취급회수도 종래일일사회를 일회를 증가해서 오회로개정하야 우편물속달의 편의를도모하게되엿는바 취집시각은 다음과갓다

▲取集時刻

便名	集配手局出發時刻	同上局歸着時刻	主要方面
一號便	前八時〇分	前八時五〇分	平壤、滿洲方面及豐德
二號便	同一一、五〇	後〇、三五	京城、元山、釜山及內地方面
三號便	後二、一〇	同四、〇〇	平壤、新義州及安東
四號便	同五、四〇	同六、三〇	京城、元山、釜山及內地方面
五號便	同九、〇〇	同九、四五	平壤、新義州及滿洲方面

▲配達時刻

便名	集配手局出發時刻	到着郵便主要發送先物
一號便	前七時三〇分	京城、元山、釜山、內地、大邱、平壤及滿洲方面
二號便	後〇、二〇分	京城、元山、釜山及內地方面
三號便	同六、四〇分	平壤、新義州、安東、釜山、大邱、內地、京城方面及豐德

運動競技 世界陸上廿傑 【10】 1936年度

◇走幅跳 【◎印은世界新記錄】

1、오웬스(米國)◎八米〇六
2、킹그(米國)七米九二
3、크라ー크(米國)七米九一
4、롱ー(獨逸)七米八七
5、라이힐(獨逸)七米七六
6、田島直人(日本)七米七四
7、맛헤이(伊太)七米七三
8、봄스(米國)七米七〇
9、그린ー(米國)七米六〇
10、울존(米國)七米五七
10、본ー(米國)七米五七
12、리ー를(米國)七米五六
12、밀 론(米國)七米五六
14、미ー카(米國)七米五四
15、빼케ー(米國)七米五二
16、스킨나ー(米國)七米五〇
17、빼러ー(諾威)七米四八
18、아스룸(獨逸)七米四五
18、오리보에라(伯國)七米四五
18、요네스라(루마니아)七米四五

世界重量級拳鬪十傑

今年度世界重量級拳鬪界의『베스트텐』을紹介하면다음과갓다

▲選手權保持者젬스·뿌라독(米國)▲第一位막스·슈메링(獨逸)▲第二位죠·루이스(黑人)▲第三位알·에드아(米國)▲第四位잭크·샤ー키ー(米國)▲第五位맥스·베어(米國)▲第六位마키시ー·로젠부름(米國)▲第七位레로이·헤인스(黑人)▲第八位렛드·빠ー만(米國)▲第九位홀·룰베ー카(米國)▲第十位레이·인빠리집(米國)

歲末同情週間

光明을등진그들에 한줌쌀 푼돈을

대하고루(大廈高樓)가 처마끗흘 맛대여 깁것는 사람을 업누르며『아스팔트』넓은길우에 뒤끓하나보히지안는 대도회지는 현대문화의 찬미자요 또한 저주자이다 명랑과 암흑의 량극상(兩極相)이 뚧고 밧듯한 거리우에서 매일가티 전개되고잇는것도 도회지가 아니든가! 도업고 집업시 헐버슨무리들에게 가는밤 오는낫 어느때인들 반가울리업저마는 그들에게 더욱 떠설고도 쓰라린것은 한해의 마지막 세모이다 지위와권력、명예와 성공에 만인이 날뛰고잇슬때 그들은 한숨과 서름、눈물과 절망에잠겨 주림에울며 추위에 떨고잇다 이리하야 명랑한 세모풍경도 그들에게는 암담한 고루(苦鬪)이며 천길벼랑에선 광조(狂燥)뿐이다

×

칠십만 큰식구를 자랑하는 대경성에 이와가티 가엽고도 외로운 인생행로를 떠도는 빈궁민이·십만에 갓가운 수자라고 해서는 누구나 얼는고지안들을 것이다 그러나 알고도 모르는척 할수업는것이 또한 따뜻한 사람의 순정(純情)이니 서울장안 이곳 저곳에서잇는『세말동정주간』(歲末同情週間)의 굴근 글짜가 이것을 표시하고잇다。십오만개의 동정주머니(同情袋)는 두손을 들어 한술의쌀 한벌의옷 한푼의 돈을 환영하고잇스니 피가뛰는 시민이야 누구라 휘자치안흐랴! 여긔에는 맑고도 거룩한 인정의『멜로듸』가늘 려오고잇다

天下一品

萬

キッコーマン醬油

キッコーリウ醬油

ヂガミリウ醬油

特賣品 附

贈答에는 最適品

各印樽詰 毎に 味の素(小罐)一個

各印罐詰 毎に 味の素(小罐)一個

各印壜詰 毎に 洗髮モダンシャンプー 一個

빠짐업시進呈

(特賣區域 朝鮮全道)

宮內省御用達　野田醬油株式會社

L—17

性病 尿の病

(病院가기싫은분은) 自療法의 公開
淋疾、梅毒、尿道、膀胱、淋疾及手淫、治療法、食餌生活과 ...
和歌山市公園前 自療堂 泌尿部
電話一〇八三番

海狗腎

樺太廳官營專賣品
求하심을 願하시는분은 說明書請次第無料進呈
釜山草梁町 合資會社大洋貿易社

婦人科 癌 라듸움科
京城婦人病院
醫學博士 工藤武城 醫局女醫李敏信
電本③〇四八一·三八九三番·京城北米倉町九四

기침에
달고 먹기쉬운 시롭藥劑
コデチン 고데친
藥價 三十錢 五十錢 一圓

ツライ齒痛にスグキク 今治水

呼吸器·結核症

呼吸器病은 恒常身體虛弱의 間隔을타서 侵犯하는것으로 可及的 肺結核의 初期徵候는 貧血·羸瘦·盜汗·微熱·食慾不振·咳嗽·喀血等입니다。以外에 肋膜炎을 併發하는일도잇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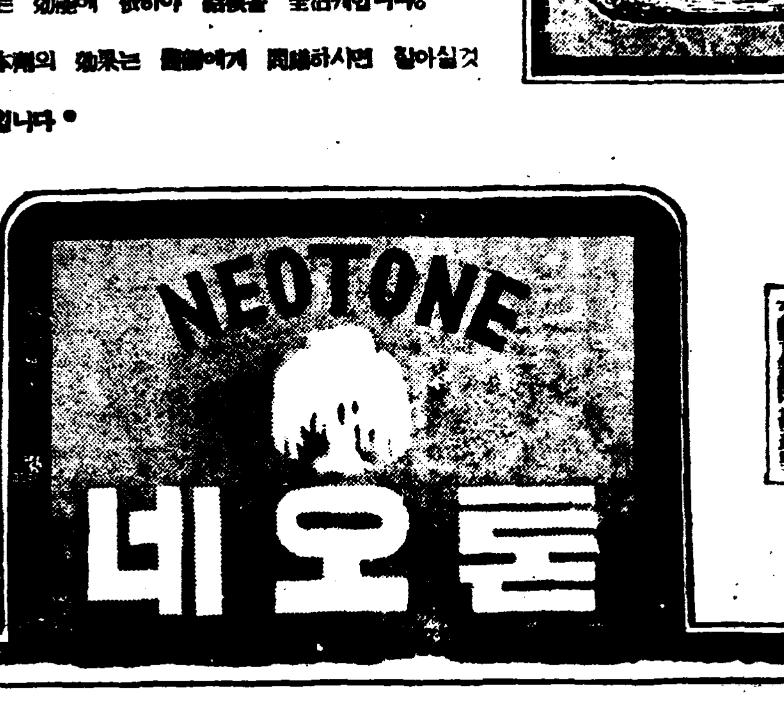
實로 이 早期結核째야말로 健康을 恢復할수잇는 黃金時期임으로 이 時期를 일치말고 根本治療에 全力치안으면 後悔을 不治못하게됩니다。

이 가장 有效한 藥劑療法으로

네오톤을 服用하면 結核에對한 特殊的效果 及抵抗을 亢進시키는 作用과 食慾을 增進하고 胃腸의 障碍를 防止하며 咳嗽를 鎭靜하고 祛痰하는 効力이 有하며 中樞神經을 刺戟하야 生活機能을 向上식히며 細胞新陳代謝를 促進식히는 効能에 依하야 結核을 全治케합니다。

本劑의 効果는 醫師에게 問議하시면 알아실것입니다。

NEOTONE 네오톤



네오톤 總發賣元 株式會社 柳韓洋行 京城·大連·上海

產業

廿四萬町步目標 大規模治山計畫
經費七千餘萬圓·十五個年事業 明年度부터着手實施

總督府林政課에서는 昭和十二年度부터 十五個年計畫으로 七千五百六十一萬八千圓을 投하야 治山計畫을 實施하기로 決定하엿는데 이에依하면 十五個年後에는 二十四萬四千二十七町步의 砂防工事를 完了할터로 이計畫에는 昭和十年度부터 十五個年計畫으로 實施한 旣定砂防工事의 殘部及 現在砂防을 要할곳 山等 이때까지 아무 砂防工事의 具體的計畫이 업는것도 全部包含하기로 되엇는데 그總經費의 內容은 如左하다

國庫 一千九百四十八萬三千五百圓, 道費 一千四百二十萬一千七百圓 民費砂防費 九百九十三萬五千八百圓 洛東江砂防費(國庫負擔으로 實施中의것) 二千年計畫으로 十年부터 十個 十五萬六千四百圓 江原道砂防費 百八十四萬一千圓

그리고 그面積은 如左하다

國庫 三萬八千九百六十七町步 道費 六萬五千四百十町步 民費 七萬九百七十町步 洛東江砂防 五萬八千八百八十町步(但國庫負擔의 洛東江關係를 除外)

夏秋蠶收繭豐作
產繭七百六十八萬瓩 飼育戶數、掃立數量增

昭和十一年 夏秋蠶飼育戶數는 五十八萬八千二百廿一戶로 前年의 五十七萬六千四百七十戶에比하야 一萬一千七百五十一戶(二分)增加이다 蠶種掃立數는 四十二萬二千百八十二枚로 前年의四十一萬六千七十五枚에比하야 五千四百七枚(一分三厘)의增加, 產繭은 七百六十八萬八千八十一瓩으로 前年의六百六十二萬一千六百四十二瓩에比하야 百六萬六千四百卅九瓩(一割六分一厘)의增加를示하얏다

今年의夏秋蠶成績은 八月中下旬의 中、南朝鮮一帶의風水害에 依한 災禍를蒙하얏스나 飼育戶數、蠶種掃立枚數는 前年에比하야 모다 增加되고 育蠶期中은 氣候不順으로 地方에依하야 一時作況을念慮되엇스나 飼育技術의 改善과 指導及蠶期天候가 比較的 조아저서 一般으로豐作이엇다

榮州郡內林業狀況

慶北榮州郡內 林業狀況을 調査한데 依하면 當局에서 指導獎勵한 結果 其業績이 逐年으로 發展되여간다는데 이제 其實績을 紹介하면 다음과갓다(單位町)

▲林野總面積이 四五、二六六、〇〇)要存林野一六八、三六、五七民有林野三二、一二一、〇七▲主要造林地外保安林保育施設七四、六五▲國有林一、一四三、一二▲學校林一〇三、一六▲保安林二、七〇〇、〇〇〇本▲耕地事業赤松二四〇、〇〇〇本▲山林一、〇〇〇本 櫟四〇、〇〇〇本▲其他八、〇〇〇本 以上合計二九九、〇〇〇本

慶北道叺統制 會社創立遂決定
道와會社間覺書內容

[大邱] 慶北道叺統制合同問題는 八日道側과 會社側間에 最後의 折衝案이 成立되여 資本金五十萬圓(二十五萬圓拂込)으로써 叺會社를 創立하기로 決定되엿다는데 役員은 十二日에 決定하리라한다。

▲道側及會社側間覺書의全文

一、會社는 各郡農會에잇서서 共販에 附할 肥料叺及製用叺을 引受買收할事

二、會社役員의 選任에 對하야 道知事의 承認을 受할事

三、會社는 每年度의 決算及利益金處分에잇서 道知事의 承認을 受할事

四、買收價格의 決定方法은 道의 指示에 依할事

五、會社의 代行者選定과 代行條件等에 就하야 道의 承認을 受할事

六、創立當時의 株主는 代行者로서할事 代行者잇는 區域은 新設할 產業組合 又는 生產團體等에잇서서는 代行함을不得할事

七、現在叺를 取扱한 慶州、乾川兩組合은 代行하도록 할事 其代行條件은 一般代行人과同樣으로할事

八、前項의 兩產組를 除한 旣設產組로서 會社의 代行을 希望하는 組合에 對하야 組合所在地에잇서서 隔市日마다 代行者가 交替、代行케할事

九、創立當時의 株主는 其株主된 資格을失할時는 同時에代行者된 資格을 失할事

十、新代行者를 決定할時는 道는 會社에對하야 生產者의團體로써 代行할것을 指示할事

十二月八日

慶北道產業部長 李昌根 印

慶北產業株式會社(假稱) 創立委員長 牛田敏治 印

朝鮮米布哇進出 二千五百石注文到來
今後同方面輸出期待

[釜山] 四精白米 移輸出의中心地인 釜山港은 從來外國輸出地로는 南洋、滿洲國뿐이엇는데 數日前에 米國布哇에서 精白米二千五百叺의 注文이 神戶米穀商을 通하야 왓는데 이注文으로 말미암아 釜山白米時勢가 昂騰하야 十二月初에 一等一叺十一圓五錢이던것이 十日에는 十一圓五十錢으로되어잇다한다 그리고 今後布哇方面의 注文에 만흔期待를 가지고잇다고한다

棉種自家採取를 全北道에서獎勵

棉作의 大減收에 伴하야 明年의 播種用種子에 大恐慌을 齎來할것을 憂慮한 農務課에서는 耕作者에 對하야 極力으로 自家採取를 獎勵中이라 作況의 不良으로 種子가 充實치못한 關係로 如意한 採取가 不能하야 所要豫想收量 百八十萬斤에 對하야 九十八萬斤가량 採取하면 大成功이라 할수잇스므로 道에서는 共販棉花中에서 一百萬斤을 採取에 適當한것으로 認하고 거기에서 百二十萬斤의 種子를 工場에서 採取保管하도록

洪原特產土器 各地로搬出
農村經濟에큰도음

[洪原] 咸南洪原은 古來로 土器(독)特產地인바 近年에는 隣近各地移出이 旺盛하야 農村에 여간한 도움이되지안는다 한다 南으로는 西湖津부터 北으로는 新浦港까지 이르는 各地數千漁船에 한배에 물독 數三個式使用하고잇을뿐아니라 沿岸住民의 김장독도 모다 洪原產을使用하고잇다

▲寫眞은洪原產〃독〃市場

俎上에오른咸北資源 ②
一旦地殼을뜨면 各色鑛物이燦然

咸北特派員 吳快一

鑛業資源

全朝鮮有礦炭의 九割에 該當하는 埋藏量 九億六千四百萬噸의 石炭 世人의 耳目을 衝動시키는 茂山鐵鑛을 筆頭로 金、銀、黑鉛、高嶺土、〃마네사이트〃大理石等 昭和九年度現在 鑛區數三百三區로 그面積이 一億六千四百二十八萬六千一百八十七坪 年產額四百萬圓을 가지고잇다。

石炭

現代產業의 中心이 工業이요 工業의 原動力이 石炭이라하겟다。이貴重하고도 豐富한 石炭을 가젓다는것이 咸北의 모ㅣ든 資源가운데 一層貴여운 存在가되어잇다。

이에 分布狀態를보면 鑛區數百九十 面積一億一千一百萬坪 埋藏量八億六千四百萬噸으로 全鑛區數에잇서서 全朝鮮의約六割 面積에잇서서 約二割分 埋藏量에잇서서 約九割을 占有하야 斷然 石炭王國을 形成하고잇다。

南部는 吉州、明川、鏡城郡으로부터 北으로는 會寧炭田을넘어 멀리 鏡城、穩城、慶源、慶興郡等 豆滿江沿岸에미처 廣袤 實로 八十余方里에 達하고 平均五六尺의脈幅(層厚)을가진 炭層이 一層乃至六層까지 堆積하야잇다。

岩質은 花崗岩 或은 片麻岩을 基盤으로한 第三紀層에 屬하야 砂岩、頁岩、礫岩及砂質頁岩等과의 互層으로 岩質은 全部가 褐炭에 屬하야 第三紀層으로서는 斷然 優秀한 炭이라한다。

이에 咸北炭의 長短을 본다면

一、固定炭素가 적은것
二、不粘結性인것
三、水分과 灰分이 過多한것
四、風化龜裂이 甚한것

等으로 日本內地炭이나 撫順炭보다 多少의 遜色은 잇스나

一、炭價가 低廉하야 家庭用煖房用에 最適한것
二、各種工業用으로 重用 或은 混用으로 多量使用되는것
三、揮發分이 頗多하고〃타ㅣ르〃分亦不少한 關係로이特性을 利用하야液化工業이 發興한것

等의 有利한 點이잇서 特히 液化工業의 發達에 依하야咸北炭의 聲價는 漸漸 노파가고잇다。

다시 炭田의 分布狀況을보면 重要炭田及其埋藏推定量은 如左하다。

吉州	明川炭田	三〇〇萬噸
	生氣嶺炭田	三〇〇〇
鏡城	鏡城炭田	六〇〇〇
	會寧炭田	一〇〇〇〇
	慶源炭田	二四〇〇〇
	阿吾地炭田	八〇〇〇

如上의 豐富한 咸北炭은前記한바와가티 炭質의 關係上그대로 燃料로하는것보다는이를液化하야 重油其他製品으로生產하는것이得策이라하야 各方面에서 研究하여오든中昭和六年에具體化를 보게되얏다。卽咸南興南에 本店을가진朝鮮窒素會社가 明川郡에가진自己所有永安炭坑에서年產十萬噸의石炭을採掘하야 此를 低溫乾餾하야 半成骸炭、〃파라핀〃及重油를 製作하는 工場을 永安에 設置한것이 本道에 液化工業이 發生한 始初다。

元來 液化工業은 石油의不足에 苦悶하든나머지 重油를 얻는 方法으로 石炭을 液化하게되것인데 그生產過程은 大略 다음과갓다。

最初에 半成骸炭과 低溫타ㅣ르를 만들고 다음 低溫〃타ㅣ르〃를 加工하야 다시 〃개솔린〃重油〃파라핀〃의 三製品을 製造한다。半成骸炭은 工業用에 利用되는外에 將來는 家庭用燃料로서 無煙炭에 代用할수잇다。液化되지안흔 餘剩瓦斯는 家庭用瓦斯로 利用되는 以外에〃메틸알콜〃의 原料로 利用될것으로 實로 一擧兩得의事業이라하겟다

以上과가튼 工業은 石炭의豐富한 本道에잇서서 그前途가 크게 囑望되고잇다。

鐵

鐵鑛은 아즉 正式作業에 着手치는못햇스나 製鐵所問題와아울러 驟然히 이르고잇는 茂山三菱鑛山을 筆頭로 富寧郡에도 將來有望視되는 鐵鑛이잇다。

茂山鐵鑛은 元來 土城鐵이라 十數年前에 鄭喜民이 發見하엿스면서도 鐵에對한 素養이 全無함으로 덤거두어 不顧하든것을 三菱財閥에서 拾得한것으로 埋藏量四億噸乃至五億噸에 成分은 磁鐵鑛으로서約四十二%의 鐵分을가지고잇다 不遠에 決定의 發表를 보게될 製鐵所와 關聯하야 咸北工業의 中樞的地位에 登場하게될것으로보인다。

高嶺土

高嶺土는 一種의 粘土로 鏡城、明川、會寧、等地에 無盡藏하나 그中 鏡城郡生氣嶺에서 產出하는것이 最良의 것이다。此種의 豐富한 材料는 不遠한 將來에 窯業의 企業化를 促進시킬것이다。

金

主要產地는 富寧郡으로 現在 作業中의 鑛區十二個所、年產額十五萬圓에 不過하나 富寧郡靑岩面의 三菱金山 同郡觀海面의 廉昌金山(東拓所有)等은 相當한 成績을 내고잇다。

其他鑛物

城津郡을 主產地로하는 黑鉛과 特殊鑛으로 近來 새로이 만흔〃마네사이트〃、明川、城津、富寧、及會寧郡等에서產出되는 大理石 會寧、鏡城兩郡의 粘板岩은 各其 貴重한 工業資源이되고잇다。(續)

十一月京城物價

品目	銘柄	單位	平均價格 十一月	前月	前年十一月
▲穀物(7)					
玄米	改良種上	一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精米	日本內地人用普通	百瓩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麥	西鮮	一石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小麥	黃海道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大豆	龍山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小豆	同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粟	鐵嶺上	一俵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織物(2)					
和金巾	三A	一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三八	綿	一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織物原料(3)					
綿絲	紡績十六手	一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生絲	最優	百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繰綿	綿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燃料(4)					
石油	松	一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石炭	撫順(中)	一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木炭	白	十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松炭	新炭	同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食料品(6)					
小麥粉	一等	一袋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砂糖	精白	百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醬油	龜甲萬	一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再製鹽	仁川	百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日本酒	櫻正宗	四斗入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麥酒	麒麟	一函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肥料(2)					
豆粕	安東	一枚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硫安		十貫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建築用材料(3)					
木材	朝鮮松挽材	一才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鐵物	亞鉛引浪板	一枚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板硝子	旭 黑菱	一箱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其他(3)					
牛皮	改良上	百斤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洋紙	富士자라 四二封度	一連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燐寸	羽 團	一百打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總平均指數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DK가明春부터 副業講座를放送

總督府 計畫이라하며 그러고도 不足되는 八十萬斤의 種子를 購入하려면 一萬四千餘圓을 要하는바 作業 全部 新作者의 負擔으로하기는 困難한 事情도 잇스므로 農會 或은 工場에서 一部負擔을하도록되리라고한다。

京城放送局에서는 農山漁村振興의 一助로 副業을 平易하게 理解식히기爲하야 總督府 各種試驗所及 民間의 有力者와 協力하야 新年의 一月中旬부터 講座를 放送하기로되어 每週一回 午後六時 二十五分부터 三十分間式 一個年間繼續하야 放送하리라는데 各方面의 人氣가잇고 各道農林局長의 放送內容에對하야서는 考慮가 잇스리라한다。

日用商品市況

十一日 京城市內의 砂糖及麥粉市況은 大體如左하다

▲砂糖 昂騰

砂糖은 年末年始의 大需要期를앞두고 入荷及 賣行이 激增되고잇는바 市勢도 前週보다昂騰되야 今日 六十斤(百斤)入一俵에 對하야

白砂糖	二三、一〇
黃砂糖	二二、一〇
黑砂糖	二二、〇〇
分蜜糖	一八、五〇

으로 白砂糖과 如함은 歲暮의贈答品으로 大需要豫期되는만큼 前週에 比하야 百斤當 七十錢의 昂騰을 보햇는바 더욱先高가豫想되리라고한다

▲麥粉 强堅

麥粉도 年末年始를앞두고 需要의 大激增을보고잇는바 今日時勢는 二二斤入 一袋에 對하야 四圓九十五錢으로前週에比하면 十五錢가량 昂騰을 보햇다 現在市內에는 在荷도相當하야 品不足에까지는 이르지 안흘리라고하나 大勢로보아 亦是 先高가豫想되리라고한다

社會事業協會收合 水害義捐金

▲一五、九〇 長連基督敎會一同
▲二、〇二 會寧天道敎 宗理院
一、〇〇 韓昌鎬
五〇錢 蔡浚律
四〇錢 裵錫秀
三〇錢 吳京鎬
▲三三、四〇 付岩里同會 付岩里靑年會
二、〇〇 尹秀曦
一、七〇 無名氏 金明遠 金聖萬 劉二
一、〇〇 崔鳳燦 N·R·C 無名氏
五〇錢 金炳峰 李秉泰 朴聖天
金泰九 李根培 柳甲成 秦永順
李三俊 禹聖浩 高元榮 金商玉
閔泳範 李永浩 金相培 李聖云
金山伊 朴鎭煥 尹五用
四〇錢 李二龍
三〇錢 尹鍾壁 李容石 金容基
金東根 金東信 洪鍾範 金命哲
高彰東 李在俊 鄭溥均 張聖俊
二五錢 池世榮
二〇錢 黃昌成 閔炳珣 鄭敏植
朴聖業 朴德昌 朴龍夏 朴萬容
朴聖鉉 朴壽山 閔東玉 鄭奉七
柳永旭 金自春 禹鍾國 尹寬榮
井四用 李容勳 盧正植 申完奉
孫龍得 黃慶熙 池仁植 孫聖煥
李慶秀 金致善 金東倬 許順汝
李祐鎬 諸仲景 崔漢奉 韓吉童
李相峰 金元俊 宋秉元 許聖烈
張春煥 李相熙 鄭武奉 鄭鳳三
一五錢 金鍾淳 朴俊東 申命同
一〇錢 朴勝經 朴石健 柳乙成
咸福男 黃聖萬 黃崙岩 許 澤
金在得 金先得 金復景 金今福
金容勳 金順植 崔公燁 潘興龍
李相龍 李秉昇 李伯龍 李五長
鄭元植 車慶演 張再曄 文昌煥
林鍾宇
五錢 車八奉 尹時榮

▲五八、五〇 州內里支局經由 (素人劇上演實費五〇圓除)
一〇、〇〇 鄭德常 任宗洛
五、〇〇 朴東洙 金洛起 水野
三、〇〇 徐同 梅森漂 文川業
二、〇〇 林生範 權澤夏 李東協
隊一同 楊瑞山 李憲均
梁斗星 金聲遠
一、〇〇 金河根 鄭得朝 宋東鎬
金炳甲 成周業 全興植 于基西
適尙憪 李孝義 管原 崔約翰
劉化龍 權心周 韓禎道 宋秉玉
黑野 申敦秋 徐炳彥 申彥根
秦芳圓 全鶴林 張炳七 金仁淳
崔秉俊 朱鳳燮 朴承元
五〇錢 金李鉉 金秉奇 金秉柱
衣類三點 姜順舞
二四、〇〇 無名氏
京都市上京區
▲四二、五二 上賀茂朝鮮人一同 (送料三〇錢除)
一〇、五〇 李 斑
一、五〇 崔相龍 朴京八
一、〇〇 具在希 李章錫 金在德
金十俊 金炳坑 孫聖奎 金相辰
崔千岳 金甲世 朴永坪 金士榮
李柄宰 崔一鳳
五十錢 張瑜俊 金永伯 崔三出
金岐貫 金彥起 千奉錫 姜太永
朴三洪 金貴德女史 李仙伊女史
朴張福 徐聖仁 中村吉次郎 李丁福
朴得京 吳春默 金在守 朴張玉
劉萬源 姜任安 金助甲 金末貫
李二道 郭在變 盧鳳玉 徐允洙
孫祥抱 朴永祚 柳相守 金德周
三十錢 金且成
安甲用 李丙彥 方德福
二十錢 李允商 徐金出
朴道世 金渭城

▲三七、二二 福井縣敎賀町有志 (送料三十九錢)
尹琮喜 兪三俊 李萬植 崔南植
鄭奮彥 崔龍守 許一道 鄭書日
梁三用 辛頑烈 金岳鮮 崔点植
鄭命述 元判俊 南奉官 金同介
徐煥伊 朴龍漢 金奉甲 崔道龍
金洪龍 白樂八 魚允久 諸白奎
鄭石雲 朴敏守 徐萬述 兪末石
鄭命祚 朴鶴岩 薛陳哲 鄭德三
朴俊今 崔壽俊 安必萬 徐春得
徐得伊 禹哲石 金泰守 姜基祚
金永今 金奉祚 許基奉 劉達元
李秀玉 金石萬 李春實 鄭宗道
卞得三 李龍述 諸欽壽 梁圖河
曹周星 金龍淵 曹仁福 金元圭
鄭千秀 金進元 崔鎬鳳 朴熙喆
李鍾根 金外得 鄭命道 許文甲
徐守祚 金元玉 姜成斗 朴昌得
李元甲 柳鳳來 鄭光守 諸斗元
鄭光之 金成達 吳福東 徐用得
金碩信

▲三七、二〇 西大門理髮營業組合
內譯
二、〇〇 金東律 林英植 宋壽
李 姜福成 金俊鎬 河龍吉 曹
英福 鄭雄伊 崔明順 韓敬瑞
本俊明 安成達 張甲石 朴元實

李鍾燮 五〇錢 鄭水連
張致國 尹昌萬 姜俊鎬 鄭斗萬
宗沉 朴珠成 金漢洙 任鍾淳
金東旭 韓萬玉 李起七 白漢洙
金鏞漢 柳癸吉 金千龍 尹大杜
三〇錢 田永修 鄭五奎 金吉同
梁鳳植 申相鍋 許玉鳳 徐廷萬
二〇錢 金順童 成定濟 林春鳳
光俊 朴守有 金大順 元亨善
安圭植 金壽吉 一〇錢 宋在元
李寅俊 李春三 尹小龍 朴興錫
朴辰天 李東山 張燉錫 徐敬興
金光熙 梁甲順 金仁圭 鄭鳳錫

▲一二、七七 大森購買組合
東京市大森區大森九丁目三七〇九
一、五〇 嚴春燮 一、〇〇 鄭
乙述 金昌祚 五〇錢 李秉奎
李學伊 朴鳳允 柳順岩 嚴成福
金連生 金文道 金福南 朴相福
金致德 金永正 朴擧出 林 氏
三〇錢 李廷鎬 金小學 姜守寬
朴昌善 全方化 金在道
二〇錢 鄭在述 嚴龍吉 金斗入
洪七生 金元道 金在福

滿洲國
▲一五、一五 安東稅關監視科 (送料二十五錢除)
五〇錢 若園一雄 王紀文 高麗先
酒寄善一 藤島善太郞 王恩榮
朱東杰 寺尾淸 川竹誠 姚玉璋
潘炳德 張壽五 松永文一 韓慎徹
滕德鴻 寇殿昭
一、〇〇 金士寬
三〇錢 韓寅郁 曲麟田 薛作棟
李英斗 孫宗文 姜鈍仁 李德林
陶錫舞 哈仲康 田甚興 李彬如
于春和 楚永宏 林東振 于文紳
李宗淵 王復會 姜振海
三〇錢 王成兆 李明德 孫炳善
崔顯章 時運柱

名古屋東區千種町
▲一四、五七 名友俱樂部 (送料二三錢除)
二、〇〇 南相淳
一、〇〇 金敬守 李基田
五〇錢 金春澤 金德祚 宋敬李
安達朔 丸山浦一 竹內孝治 朴七達
金十中 金憲鳳 朴二出 諸任出
金甲生 金後山 金好一 金泰潤
三〇錢 金德守 金永燁 千亨旭 崔海元
金三守 金好辰 陳石泰 姜仁述
二〇錢 金正春 裵在道

▲一一、四五 松汀里支局經由
一、〇〇 金德洙 朴泰容 金時永
朴成淳 許東然 松竹電氣商會
五〇錢 朴正蕙 京城旅館 洪廣煥
三〇錢 曹寬述 郭成在 柳秉連
黃河永 李仲夏 李今烈 宣良植
二〇錢 韓現周 金吉昇 吳在旭
金奉秋 李啓八 諸長玉 吳奉鎬
金判玉 金景相 姜忠錄
一五錢 金在九

▲三〇、一三 淸津支局經由
內譯 費用一四、六八除
一〇、〇〇 金龍煥
五、〇〇 張始亭 張壽福
三、〇〇 梁大鵬 羅秉祿
二、〇〇 淸昌醫院 李昌仁 淸津
皮革商店 金剛寫眞館 國際靴店 朱
一、〇〇 鄭鳳儀 昭和寫眞館 李奧西
李源 金洙永 李應實 李禎雅 海友商會
金聖業 安重奎 東亞樓 李 俠
國境商會 延秉秀 姜成周 美光寫
金斗星 金秉倫 韓亨信 李鍾旭 沈
寫館 黃鶴律 唯一理髮館 金基善
英錦 朴衡權 羅守甲
康樂館
一、一〇 申鳳順
五〇錢 裵奎煥 盧冕煥 徐鍋煥
李鳳祚 雙順館 池順愛 崔應秀
李永出 姜錫模 吳莊根 宋俊憲
任顯鎬 姜龍山 鄭濬成 金弼煥
二〇錢 裵奎煥
二六、四〇 金成七 吳德謙
淸德普通學校職員
四、三〇 淸進幼稚園園兒一同
四〇、一〇 第一公普通學校職員 生徒一同
一、六〇 淸津鮮鐵工場兄弟商會
一五、七四 海星學校職員生徒一同
二六、五五 極樂庵
一〇、〇〇 金剛佛敎婦人會
一七、〇〇 淸津府內印刷職工一同
七、六二 末陸學校職員生徒一同

▲一〇、〇〇 大阪市東成區中川町一〇七
一〇、〇〇 在大阪成德婦人會
一、七七 金川郡 古東公普兒童一同
二、〇〇 金川郡古東公普校 姜副男

三、一七 [illegible]幼稚園兒一同
二、〇〇 大阪藥業組合 李泰淳
一七、五三 鏡城支局主催音樂會
一〇、一五 城津支局經由
一、九六 竹山親睦會
六、九六 新興支局經由
六、〇〇 永興郡武興
三、〇〇 東明學院兒童一同
五八、五〇 龍岡學院兒童一同
一、七六 川內里支局經由
一〇、七五 平壤夜學部兒童一同
四八、三六 駒澤大學朝鮮學生一同
二二、二〇 大正大學朝鮮學生一同
一二、五〇 滿洲朝鮮佛敎東京留學生一同
一、六九 安州支局經由
九、三〇 堺市湊町朝鮮人一同
五、三〇 堺市湊町森田鍍金工場職工一同
四七、九五 高津支局經由
一五、七九 淸水縣有志映畫會收入
七、一四 長崎公立普通學校生徒一同
七、三〇 水原郡松山面監理會、沙江、馬山花葉敎會
一〇、二〇 東京市本所區菊川町二丁目新友會
四、五〇 金川郡邑內吳寅東
二、三〇 明川郡雲城學校生徒一同
三、五四 信川郡加蓮公普校職員生徒一同
一三、〇〇 東京醫學朝鮮留學生同志會
一二六、〇〇 東京農業大學鷄友會朝鮮人同窓會
二、〇〇 密陽郡上東公普校生徒
一〇、〇〇 東京昭和女子藥學專門學校朝鮮人留學生一同
一二、四七 法政大學우리同窓會
五、三二 延吉縣南道溝民成學校五年生一同
二〇、〇〇 ハルビン道外太古九道街聚源昶普通學校職員生徒一同
五、〇〇 載寧 共明學校職員一同
四、〇〇 楊州郡北栗 三樂學院生徒一同
一三二、六五 米國桑港 在桑港國民會

▲五、三二 民成學院第六年生一同 (間島省延吉縣南道溝市)
內譯
五錢 鄭弼永 金明河 李仁範
李基石 全奉珍 朴基元 崔亨鳳
吳京洙 沈正甲 金鶴鳳 金青松
全湖傑 朴招洪 李相福 鄭石今
池龍石 文元錫 金得龍 朴洪根
張貴男 李民洪 李民和
六錢 李律淵
一〇錢 姜珍奎 金宋河 朴成東
李杜漢 金元俊 朴三龍 崔松峰
金基元 金億哲 李曾實 蔡亨點
崔哲鳳 黃龍弼 李龍珍 金炳範
一五錢 金東默
穀物品
五升 許松學 姜龍順
三升 朴錫鋼 金龍澤 李今哲
尹永奎 崔海玉
二升 崔仁哲 吳明哲 朴完楝
金鶴鉉 金仲哲 崔鶴範 崔正林
金學善 金松學
一升 吳基成 玄弼俊 韓順哲
李石奎 李海洙

▲三二、〇八 祭基町町會經由分
內譯
十錢 朴敏煥
朴壽年 韓凡山 姜斗植 韓富山
朴元默 金樂敏 姜錫基 諸太弘
尹宰承 朴忠植 李鍾大 田順萬
崔永澤 金英澤 王允澤 金範松
崔吉文 韓泰山 方敬龍 白春植
朱銀三 崔定均 鄭麟秋 張化三
元英俊 申壽萬 陳相連 諸東洙
申英雨 鄭光山 洪淳武 金台淳
裵德潤 李天賀 金泰漢 梁鍾雲
李基榮 崔東根 田千福 申泰榮
金鍾國 金壽鍾 崔根用
一三錢 朴應洙
一五錢 金亨培
二〇錢 許 環 李錫洙 金文弘
金貴男 金斗釗 鄭聖澤 無名氏
金弘仁 李連雨 金昌稽 許炳均
林澤用 金永振 韓龍萬 柳春澤
金相億 徐山玉 金先男 崔煥基
任相鎬 金壽同 朴濟鎬 金在澤
柳漢植 鄭晉鉉
三〇錢 金乙用 王宗俊 安杜英
申應雨 金鳳圭 朴根杜 崔敦明
嚴紀燮 金世淳 朴聖男
四〇錢 朴熙昌 金善培
五〇錢 鄭在英 安應鎬 三島
朴景愛 曹仁根 尹龍成 李基善
李南旭 藤原格致
一、〇〇 林元善 安凡用 呂南權
崔容煥 鄭道永 元聖允
任七宰 李淸勳 金弘均 福島百
影山照雄
二、〇〇 無名氏

▲一〇四、〇一 漢南町町會經由
內譯
一〇錢 金旺山 李大連 梁永燮

▲一六〇、五〇 在臺半島親睦會取扱
臺灣高雄州潮州郡潮州街六塊厝
第一區
一〇、〇〇 曹喜住 金錫燁 韓玉香
二、〇〇 李榮祥 張幽順 李榮一
李福順 林玉仙 金春子 洪承鎬
金寶分 李命林 朴正玉 洪 點
崔基鎬 秋梓月 金福童 李秋香
鄭龍秀 田點先 玉文達 孫 點
全順錫 韓小鍋 李斗今 姜玉順
五〇錢 鄭在先 崔斗里 全太先
崔上女 鄭先伊 崔錦水 金哲淳
金永姬 諸炳哲 鄭福任 朴粉先
南喜任 黃福喜
尹且出 金同禮
第二區
五、〇〇 金寶珊
三、〇〇 金元德
一、〇〇 李潤分 朴順伊 黃又
占 禹奉順 文昌殷 金允主
二、〇〇 朱錦兆 成煥伊 鄭鳳順
五〇錢 宋順伊 崔富敦 金分今
金必蘭 [illegible]
朴文任 朴又莫來 皇甫貴連
安聖先 金敬漢 李永禮 徐今珠
尹日粉 鄭守連 五〇錢 金泰順
孫小祚 張七星 鄭順伊 金斗保
朴漢順 金又逢順 鄭斗業 張桃華
一、〇〇 李玉蘭
第三區
三、〇〇 崔承翰
二、〇〇 金弘龜 鄭點相
韓興福 金裕娘
一、〇〇 朴潤點 崔粉玉 金善根
金末順 李正順 諸桂玉 朴今邑
金榮玉 金點伊 金昭玉 諸花石
金鍾仁 李鍾玉 金海順 金明月
申福實 崔茂辰 金武德 朴順弼
第四區
五、〇〇 金容允 任鉉七
李元業 姜在永 洪善濟 金鳳容
朴泰默
二、〇〇 吳億用 金達九 文快
朴致煥 金妙蓮 文同杜
四、〇〇 金仁植
總計金百六十圓五十錢也

福島縣南會津郡八幡村大倉
朝鮮基督敎東部敎會取扱
▲三十五圓三十錢敎會員義捐金
▲七十七圓三十一錢商行利益金
三、〇〇 金昌鉉
二〇、〇〇 諸漢元 朴聖吾 申洪鎭 李
五、〇〇 康 李範錫 閔丙燮 尹宗燮
三、〇〇 黃周錫 南一熙 張順泰
李潤相 高啟景
二、〇〇 鄭元均 金炳佐 柳元永 金鍾坤
全永極 金共榮 鄭潤柱 潘應浩
金潤洙 許鳳燁 鄭容杜 田太郞
金應權 劉東實 張榮達
一、五〇 金南奎 李世永
一、〇〇 全壯五 李在鶴 朴哲慶
李鍾永 崔鍾祥 金昌謙 金椎玘
金錫寬 安平國 鄭炳珍 李鍾泰
諸生業 元金守 洪錦燮 劉錫烈
金珍文 梁在悅 任昌日 尹在奎
康淳祚 河在郁 金鍾培 鄭三山
朴南相 朴辛來 朴亮來 辛得文
崔昌圭 金弼進

▲三〇、六二 神戶支局經由
神戶市灘區水道筋 (送料金三八錢除)
三、〇〇 李相振 金乙用
二、〇〇 諸寶奎 金鍾喆 洪錫喜
一、〇〇 辛泳華 金鍾得 金洋在
朴命守 金容敏 閔雨田 吳康濤
閔文植 古川直
五、〇〇 永進會 金德鎬 韓岳貝 辛泳福
五〇錢 鄭嘉善 朴秀一 吳甲文
崔仁植 閔喜鎬 辛泳榮 石寬一
鄭元伊 閔敬鎬 洪錫鶴 裵仁基
申熙祖 朴在玉 丁大洪 朴日律
諸龍來 具用大
三〇錢 李萬伊
[illegible]

雙虹舞 【61】

方仁根 作
金奎澤 畵

새 길 (四)

박면장은 윤홍을 보내고

「광훈이 게잇나」하고 소리첫다

「네ㅡ」하고 광훈은 자근사랑에잇다가 건너왓다。

「게안게」

「네」

「아ㅡ그놈들이 보통학교선생을 떼먹드니 입맛이나는지 면장까지 떼먹으려고 덤비네그려 하하하 너무떼먹다가는 배탈들이 날걸ㅡ인제는 내가 좀떼먹어야 할텐데일세 하하하」

하고 박면장은 쾌활하게 우섯다。한참당년의 호기가 그러면 수염사이에 아직까지 숨이잇섯든것가텃다。박면장은 다시정색을하고

「그런데 자네가 장차어떠케할심산인가?」하고물엇다

「글세요 그러지안허도 한번제 생각한것을 엿주어보려고 하엿습니다 요새며칠을 궁리하다가 결정을 저혼자는 하엿습니다」

「옹 그래 어떠케 결정을 햇단」

「여기를 떠나야 하겟습니다」

「여기를 떠난다 그래서?」

「어듸던지가서 공부를 하겟습니다」

「그럼 혼자 간단말이지」

「네ㅡ」

「홍홍ㅡ」하고 박면장은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니

「그러케 어듸를 가지말고 여기서 그대로 안해를 데리고살 도리를 해보지ㅡ위선 면서과 하나가 래일부터라도 뷔이니 그런게라도 해가면서ㅡ그것은내 권리로 할수잇스니까 젊으나젊은 안해를 리별하고 어떠케떠난단말인가」하고 말하엿다。

「네ㅡ그것이 미안하고 죄송하며 인정상어려운일이지마는 불가불 떠나야 되겟습니다。그리고 다시만나지요… 면서기는 낫게보아서 그런게아니라 그것은 하기실습니다」

박면장은 얼굴을들고 목소리에 힘을주며

「암 그러치 사내자식이 그래야하지! 면서기하라는것은 내가 자네 지긔를 떠보랴고 한말이지 될번이나 한노릇인가ㅡ나도 사위는 잘두엇네ㅡ떠나야지 떠나! 그리고 가서 이름을날리고 공부를하게!」

광훈의 가슴은 뜨거워지고 눈물이 나도록 감격하엿다。

「고맙습니다!」

「어린 딸년을 생각하면 나도 자네를 붓잡어야 올치! 그것이 위선 불상하니까」하고 그는 눈물이 핑적하려는것을 참고

「그러나 사나이가 그런데 발목을 매이면 안되거든! 나갈땐 나가야지! 절벽이 가로막혀도 부시고 나가야지!」

하는 박면장은 수염만 업스면 젊은사람으로 속을만하엿다。

「네 저도 그러케 생각하고 가려는것입니다」

「물론 자네가 여기잇스면 내 집것이라도 함께 먹으며 굶지는안켓지ㅡ 그러나 그러케 하고잇슬 자네가 아닌줄 나는아니까 생각한대로 실행하게ㅡ

「그럼 은혜이 하고도 의론햇나?」

「아직 아니햇습니다。아니 못햇습니다 너무 슬퍼할터이니까요」

「흥 그러켓지! 그러나 저도 웬만치 속이 틔엿스면 찬성해야 올치! 불찬성하고 옷자락을붓들며 울어도 할수업지 떼치고 갈박게ㅡ」

「네ㅡ그럿습니다!」

「여려말게ㅡ내딸은 내가잘가지 하엿다가 죽세 내가죽기전에는 그애를 딱붓잡고 잇슬터이니까 그러나 내가죽은다음엔 모르겟네 아무리내자식이라도 내맘대로못하고 무슨실수를 할지도망을갈지 모르지만 내가살아잇는 동안에는 막무가내하지!그것은밋고가게! 그래도 우리집안이 대대로 쩡쩡울리든 양반의집이니까 범절이 잇네 지금은 양반이니 상놈이니하는 관념이내머리에는 추호럴것만치도 업스니까ㅡ그러기 지체조코 속내아는 곽래식의집이나 다른양반의자식을다내버리고 평안도산골에서자라난 자네를사위삼을려 알쪼가 아닌가 하하하…그건좋담이고 그러면 가긴어데로가겟나」

「글세요 서울로갈가 흑은 중국으로갈가 [illegible] 호레리로갈가 여러가지로 생각해보앗습니다 마는 다적당치안허서 다른대로 가기로햇습니다」

「다른대라니 어듸말인가?」